



1.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율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요1:17).
사실 이 율법을 지켰던 또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서로 함께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구원을 거저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무 귀한 것이기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엡1:6,7).

이에 반해 진리란 일리와 비교되는 말입니다. 일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편으로는 선하나 한 편으로는 악합니다. 그 예로 인간의 지식으로 삶의 편리함을 위해 자연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으나 이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리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하지만 진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온전히 축복을 가져다주고 오직 선을 가져다줍니다(요8:32). 진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 즉 피조물인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시대를 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사42:5-7).

세상의 좋은 것들 속에는 반드시 독이 있고 세상의 선 속에는 반드시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피조물인 이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마치 영적인 눈이 멀어 피조물의 세상에서 좋은 것을 구하려고 했다가 새 시대에 그 눈을 뜯은 것과 같은 변화이며,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것이 사라지고 목표가 분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